



제61회 호남예술제 개막... '꽃잎 흐트러지다' 제61회 호남예술제가 20일 광주시 서구 학생교육문화관에서 개막했다. 한국무용 독무부문에 참가한 김나연(성덕중 1년)양이 '꽃잎 흐트러지다'를 주제로 펼친 독무를 15장으로 다중촬영했다. ▶입상자 명단 1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콧대 높던 광주 아파트값 7년만에 꺾였다

1분기 매매가 0.02% 떨어져... 거래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
전셋값 상승폭 둔화... 5월부터 대출규제 하락세 지속 주목

광주 북구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말 부동산중개소에 아파트를 내놨지만 다섯 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고 있다. 아이들 학교문제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증개사는 요새 경기가 좋지않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올 봄 결혼한 최모씨 부부는 목포에 전세로 신혼집을 얻었다. 직장에서 가깝고 당분간은 새집에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에서다. 애초 최씨 부부는 광주 남구에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지만 곧 있으면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보니 시간을 갖고 관망해보기로 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소식에 거래가 크게 줄면서 7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세가격 상승폭도 둔화하는 등 이상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업계는 5월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수요자들의 광망세와 눈

치비기도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라고 분석했다.

20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2016년 1분기 권역별 아파트 결산'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 떨어져 2009년 4분기 이후 7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동구가 0.41% 떨어져 하락세를 주도했고 북구도 0.15% 하락했다.

매매로 잘 이뤄지지 않아 1분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574건으로 평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0.04% 올라 직전분기(0.27%)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다. 다만, 서구와 남구, 광산구를 중심

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수요가 간간히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했다.

꾸준했던 새 아파트 공급도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1000가구 정도 입주했다. 특히 2분기에 5906가구 입주를 앞둔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전분기(0.08%)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매매시장은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1478건으로 지난해 보다 130가구 감소했다. 목포시가 0.18% 올랐고 나주시는 1.86%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거래율이 74.84%로 상대적으로

로 높은 목포시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일부 수요가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서면서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 성수기 이전에 전셋집을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등이 늘면서 거주 여건이 좋은 지역에 수요가 간간히 이어졌다.

공인중개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재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영향이 크게 나타나 6월부터 하락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적으로 보험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작년보다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폐가 사들여 4층 이하 원룸형 아파트 건설 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60~80% 싸게 임대

광주시·LH, 90억 투입... 월산동 달피마을 시범사업 내년 1월 착수

광주시가 노후 주택을 헐어내고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4층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지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 살던 주민과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형 공동체 주택건설시범사업' 주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모두 9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빈집과 폐가가 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 일대에서 추진된다. 시는 해당 마을에서 공·폐가 10여채를 사들여 철거한 뒤 30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4층 이하 저층 원룸형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내년 1월께 착수돼 오는 2019년이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형 공동체 주택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가격에 임대된다. 시는 달피

마을 저소득 주민들에게 입주우선권을 주고 신혼부부와 시민들에게도 입주기회를 줄 방침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을 바탕으로 달피마을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마을 기반시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고 도로 등도 정비된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 3월초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남구청·LH와도 협의시스템을 구축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 참여로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아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메이드 인 광주' 신형 스포티지 유럽에서 '대박'



3월 1만8092대 판매 1위

광주에서 생산하는 신형 스포티지가 지난달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지 39년만에 월간 기준으로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운 것이다.

20일 자동차업계 따르면 스포티지는 지난 3월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1만8092대가 판매됐다. 이는 1977년 현대차, 1990년 기아차가 각각 유럽에 처음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양사에서 판매된 모든 차종의 월간 판매실적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스포츠지는 현대차 130이 2010년 3월에 세웠던 월간 최대 판매 기록(1만 5273대)을 6년 만에 갈아치웠다. 기아차는 지난해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4세대 신형 스포티지를 유럽 시장에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올해 1월 마케팅을 시작했다. 3월부터는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돌풍의 주인공은 스포티지뿐만이 아니다. 현대차의 투싼도 3월 한 달간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한 1만 5천993대가 판매됐다. 이 같은 투싼의 판매실적 역시 현대차의 차종 중 역대 최대에 해당한다.

스포츠지와 투싼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현대·기아차의 유럽 판매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3월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10만 3667대(현대차 5만3612대, 기아차 5만 55대)를 팔았다. 지난해 3월에 수립한 역대 최대 판매(9만2693대) 기록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스포츠지와 투싼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월간 10만 대 판매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논란 ▶6면
파죽 간호사-신안 나춘자씨 ▶18면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WORLD ECO-FRIENDLY DESIGN EXHIBITION, KOREA

5월의 피크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16. 5. 5~5. 29
전남 농업기술원, 빛가람혁신도시 일원

7가지 친환경디자인 주제를 소개할 주제전시관

- 뽀로로와 함께하는 친환경이야기
- 친환경디자인이 만드는 미래의 삶
- 천연염색이 연출하는 쪽빛의 산비

년별 퍼포먼스 시리즈 7월 6일 공연
난타, 비밥, 점프, 사랑하면 춤을 추라, 페인터즈 히어로, 판타스틱, 드림캐트, 풍요 이 모든 공연을 박람회장에서 즐길 수 있답니다?

친환경디자인 국제심포지엄 5월 6일 공연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장, 지속가능한 산업디자인 전문가까지. 국내외 유명 석학과 함께하는 친환경디자인 학술행사

하늘정원 5월 2회 공연
명성황후 재작인이 모두 모여,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박람회 주제공연